

## “장애인에 웃음 선사” 치협 주최 ‘치아건강잔치’ 성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몸도 마음도 찌푸렸던 장애아동들이 이날만큼은 활짝 웃었다.

치협과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가 주최한 '2003 치아건강잔치'가 11월 6일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치아건강잔치에는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전용원 한나라당 의원, 송재성 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실장, 이재현 대한 구강보건협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영근 대한치과기공사 협회장 등 내외귀빈과 특수학교 교사, 학부모, 장애인 등 400여명이 참석,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치아건강잔치는 장애아동들의 치아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 한현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시상식에서는 지난 10월 한달간 서울·경인지역 53개 특수학교 1004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구강상태를 비롯, 시설 및 구강보건 관리가 우수한 학교와 건치아동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학교 단체상에는 인천성동학교, 명현학교, 한국우진학교가 각각 선정됐으며, 건치아동상에는 연세재활학교 오성호, 한국경진학교 문지은, 인천예림학교 이희배 학생을 포함 모두 53명의 학생이 예뵤이상, 고운이상, 튼튼이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구강보건관리 우수보건교사상에는 명현학교 이옥희 씨, 인천성동학교 김종숙 씨가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치과의사 VJ 김형규 씨와 올해 경기지부에서 선정된 건치아동인 박준형 씨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다양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축하공연의 첫 테이프를 끊은 한빛맹학교 합주단을 비롯, 세화 H.O.T의 댄스공연, 가수 이재진 씨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호병맨, 아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들이 장애아동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행사의 개막식에서 정재규 협회장은 “치협에서는 장애인 진로센터 개설, 상담실 운영, 장애영유아 유치예방담기 및 장애어린이 치아건강돌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장애우 스스로가 깨닫고 자신의 건강을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원 한나라당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같이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것이며 존경할만한 일”이라며 “국회 및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를 통해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의사들께서 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셨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치과의사, 학부모,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 담당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환산지수 계약 위해 노력” 정 협회장, 요양급여비용협의회사 강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인내를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단과 환산지수 계약을 위해 노력할시다.”

정재규 협회장은 11월 4일 메리터호텔에서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에 위원장으로서 참석, 이같이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2002년에는 공단의 무성으로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의약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계약이 잘 성사돼 국민에게 성숙한 의약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로부터 2004년도 환산지수 산정방법(SGR에 의한 접근)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 이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과 관련된 논의에서 의약계는 SGR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후 더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에서는 또 2004년도 환산지수(안)을 차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했다.

## 치대 입학정원 감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김화중 장관, 정 협회장 면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오전 국립보건원내 국민장관실을 방문, 치대 입학 정원 감축과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정 협회장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지문기구인 의발특위에서 의대입학 정원 감축과 마찬가지로 치대도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감축시기와 규모는 세부 연구를 통해 결정키로 했었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입학 정원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치대의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규모가 있는 치대의 입학정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협회장은 또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경우 김성호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계에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이에 대한 김 장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과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치협 현안과제 중 난제로 분류됐던 두 개 과제 해결이 급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현재 치과의사 인력감축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치협은 곧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방법에 대해 복지부는 일정한 설립 자본금을 치협이 부담하고 인력 등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치협 청구센터 현행대로 운영”

### 불법행위 계속 회원 강력 제재키로... 치협 전국 지부장 회의 · 이사회 개최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는 현행대로 치협에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사실 청구요원에게 청구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할 땐 강력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스के일링의 완전 급여화와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11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대전 유성에서 18개지부 지부회장 및 치협 이사 전원이 참석하 가운데 전국지부장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8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서울지부와 인천지부가 상정한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개방 반대안건과 관련, “경제논리에 밀려 복지부의 기존방향이 바뀌고 있는 등 의료시장 개방이 사실상 가시화 되고 있다”며 “▲시장개방 때 외국인 의사의 면허 인정만큼은 끝까지 사수하고, ▲병협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추구 ▲의협은 사보험 도입 ▲간협은 취업문 확보 등 득이 있으나 치협만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치협에 위임, 채택키로 했다. 특히 이병준 치무이사의 분석대로 각 나라별로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체제로 앞으로의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치과계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급여화된 후 의약분업때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비급여로 전환된 스के일링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지부장회의에서는 치협 요양급여 비용청구센터 운영과 관련,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3개안을 심의 ▲치협 청구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일부 회원들이 사실 청구요원들을 동원, 청구하는 불법행위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시정되지 않을땐 강력 제재키로 결의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이같이 청구센터 운영주체와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센터 개소 초창기인 지난해 10월 87개 치과가 치협 청구센터의 청구를 의뢰했던 것이 올해 9월말 현재 652개 기관으로 줄고 일부 지부에서는 자체청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청구센터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시된 청구센터 운영 3개안은 ▲사업운영을 각 지부가 운영하는 방안 ▲회맹지부에 한해 이관하는 방안 ▲현행대로 치협 청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이밖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강원지부가 안건으로 제시한 치과병의원과 종사자간의 치협 공인 근무계약서를 치협이 제작, 전 회원들이 이를 근거로 반영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강원지부에서 만든 지도치과의사제 활성화안을 치협 섭외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인천지부가 제안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공동관리 체계 구축안, 경남지부의 위생사·조무사 업무 범위 확대방안 등도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키로 했다.

##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28개팀 구성 3일간 집중조사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28개 팀을 구성, 치협에 신청접수한 61개 수련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3일간 집중 조사를 했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신청 분포를 보면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 11개, 대구지역 5개, 부산, 대전이 4개등이며, 전남과 경북은 신청병원이 없다.

이번 조사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 및 2004년도 신규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과 전공의 정원책정과 관련해 신청병원의 시설과

교육인력 및 기구 등을 파악,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병원을 선별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해 양질의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운영기반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박영국 위원장은 “2004년 인턴정원 책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당해 연도 졸업생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달 20일에서 25일경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와 전문의시행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2004년도 신규 인턴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 “환산지수 계약 성사되길”

### 정 협회장,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의견 교환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11월 10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이성재 공단이사장과 만나 오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2004년도 상대가치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환산지수 점수와 관련해

서는 실무팀에게 위임키로 하고 올해는 꼭 계약으로 환산지수가 결정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광태 병협회장이 함께 참석했다.